

- 주요 뉴스: 미국, 중국에 광범위한 소프트웨어 수출 제한 검토. 인도와는 관세 합의 근접
 - 미국 3/4분기 기업실적, 대체로 양호. 자동차 대출업체 프라이머텐드는 파산 보호 신청
 - 영국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예상치 하회. 금리인하 기대 증가
 - 일본 다카이치 내각, 대규모 부양책 준비. '책임 있는 적극 재정' 기조 반영 예상
 - 국제금융시장: 미국은 광범위한 對中 소프트웨어 수출 제한 검토 등이 영향
 - 주가 하락[-0.5%], 달러화 약세[-0.1%], 금리 하락[-1bp]
 - 주가: 미국 S&P500지수는 美中 무역갈등 고조 우려, 반도체 약세 등으로 하락
유로 Stoxx600지수는 부진한 기업실적 등으로 0.2% 하락
 - 환율: 달러화지수는 최근 상승에 따른 차익매물 등으로 4일 만에 하락 전환
유로화 가치는 0.1% 상승, 엔화 가치는 약보합
 -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안전자산 선호 강화에 따른 매수 증가 등으로 하락
독일은 ECB의 금리인하 가능성 낮다는 평가 등으로 1bp 상승
- ※ 뉴욕 1M NDF 증가 1430.0원(스왑포인트 감안 시 1432.1원, 0.16% 상승). 한국 CDS 상승

		10/22일	10/21일	전일대비			10/22일	10/21일	전일대비
주가	미국	6,699.4	6,735.4	-0.53%	국채 금리 10y	미국	3.95%	3.96%	-1bp
	유럽	572.29	573.30	-0.18%		독일	2.56%	2.55%	+1bp
	중국	3,913.8	3,916.3	-0.07%		영국	4.42%	4.48%	-6bp
	일본	49,308	49,316	-0.02%		한국	25bp	24bp	+1bp
	한국	3,883.7	3,823.8	+1.56%	CDS 5y	중국	45bp	44bp	+1bp
환율	달러지수	98.89	98.93	-0.05%	위험 지표	EMBI+	-	286	-
	유로화	1.1611	1.1600	+0.09%		VIX	18.60	17.87	+4.09%
	엔화	151.98	151.93	-0.03%		WTI유	58.50	57.24	+2.20%
	위안화	7.1251	7.1247	-0.01%	원자재	구리	499.6	496.6	+0.59%
	원화	1,429.8	1,427.8	-0.14%		금	4,098.4	4,125.2	-0.65%

주: 주가는 미국 S&P 500, 유럽 Stoxx 600, 중국 상해종합, 일본 닛케이225, 한국 KOSPI.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는 절상, 절하). 자료: 블룸버그

금일의 포커스

■ 미국, 중국에 광범위한 소프트웨어 수출 제한 검토, 인도와는 관세 합의 근접

- 트럼프 행정부는 노트북, 항공기 엔진 등 자국 소프트웨어가 포함되거나 이를 이용해 제작된 제품의 對中 수출을 제한하는 방안 검토. 다만 이번 조치가 미국 경제에도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실제 시행 여부는 불투명
-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러한 검토 자체가 미국 행정부 내에서 중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려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평가. 이번 검토는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에 대한 보복 조치인 동시에 중국과의 정상회담에서 보다 유리한 입장에 서기 위한 노력으로 해석
- 인도와는 현행 관세(50%)를 15~16%까지 낮추는 무역협정 타결에 근접. 이를 위해 인도는 러시아產 원유 수입을 줄이고, 미국產 농산물 수입 확대에 나설 전망
- 한편, 의약품 가격을 낮추기 위해 교역 상대국을 대상으로 새로운 무역 조사를 준비. 일부는 이번 조치가 새로운 관세 부과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분석. 이 외에 당국은 전략비축유 확대를 위한 원유 구매에 나섰으며, 관련 영향으로 WTI 선물 가격은 2.2% 상승을 기록

글로벌 동향 및 이슈

■ 미국 3/4분기 기업실적, 대체로 양호, 자동차 대출업체 프라이머렌드는 파산 보호 신청

- 블룸버그 등에 따르면, 3/4분기 실적을 발표한 미국 S&P500 기업 가운데 85%는 시장 예상치 상회. 이는 '21년 이후 최고 수준. 실적을 발표한 기업의 비율은 20% 수준에 불과하지만, 지금까지의 결과는 관세 혹은 불투명한 국제 정세 속에서도 기업의 이익이 양호하다는 점을 확인
- 서브프라임 자동차 담보대출업체 프라이머렌드(PrimaLend)가 파산 보호를 신청. 프라이머렌드와 같은 업체는 통상적으로 신용등급이 낮은 고객을 대상으로 고금리 대출을 병행. 한편, 프라이머렌드가 법원에 제출한 자산 및 부채 규모는 5억달러에 이르지 못하는 것으로 보도
- 한편 익명의 연준 관계자는 은행의 자본 요건을 크게 완화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발언. 아직 구체적인 세부 내용이 마련되지는 않았지만, 당국은 내년 1/4분기 공식 발표를 목표로 관련 사안을 준비

■ EU, 중국과 무역협력 모색. 희토류 수출 제한 관련 다양한 대비책도 준비

- EU의 셰프초비치 무역·경제안보 집행위원과 중국의 왕원타오 상무부장은 수출 통제 및 전기차 보조금 등 주요 무역 문제에 대해 논의. 왕원타오 부장은 양측이 협력을 강화하여 안정적인 무역 발전을 촉진할 의향이 있다고 언급
- 다만 EU는 중국의 희토류 수출과 관련된 문제 해결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다양한 대응 방법을 검토. 구체적으로 10월말까지 시행 가능한 구체적인 무역조치 목록을 준비할 방침

■ 영국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예상치 하회. 금리인하 기대 증가

- 9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동월비 3.8% 올라 전월비 보합을 나타냈으나 예상치(4.0%) 대비 낮은 수준. 세부항목 가운데 자동차 연료가 상승한 반면, 식품가격은 하락. 이번 결과로 시장에서는 금리인하 기대 증가. 또한 향후 경기 및 고용 둔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인플레이션 압력도 낮아질 것으로 관측
- 한편, 영란은행 베일리 총재는 민간 신용 규모가 1.7조달러까지 증가했는데 이는 과거 서브프라임 위기와 유사하다고 평가. 브리든 부총재 역시 높은 레버리지, 투명성 부족 등이 향후 은행권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지적

■ 홍콩 언론, 중국 인민은행이 한국·일본과 3자 통화스와프 논의. 한국은행은 부인

-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관계자 발언을 인용하여 인민은행이 한국 및 일본과의 3자 통화스와프를 추진한다고 보도. 다만, 한국은행은 해당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이번 달에 만료된 韓中 통화스와프에 대한 재연장을 논의 중이라고 설명

■ 일본 다카이치 내각, 대규모 부양책 준비. '책임 있는 적극 재정' 기조 반영 예상

- 로이터에 따르면, 다카이치 내각은 이르면 11월에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공개할 전망. 이는 인플레이션 대응, 성장산업 투자, 국가안보 강화라는 3개의 축으로 구성되고, 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 동안 강조한 '책임 있는 적극 재정' 기조가 반영될 것으로 관측. 필요 재원은 추경을 통해 마련될 계획

주요 경제지표

■ 주요 경제 이벤트(10/23일 현지시각 기준)

- 미국 10월 3주차 신규실업급여, 연준 보우먼 이사 및 ECB 라가르드 총재 발언

해외시각 및 외신평가

■ 연준, 시장의 과도한 완화 기대 경계하며 금리인하 속도 조절할 필요 - 블룸버그

(The Fed might be more dovish than Powell thinks: Bill Dudley)

- 시장에서는 10월 FOMC에서 0.25%p 금리 인하가 단행될 것으로 전망. 그러나 연준이 현재 금리가 제약적이라고 판단해 인하를 추진하는 것은 위험. 연준은 현재 정책금리가 중립 수준(r^*)보다 높다고 평가하지만, 실제로 경제는 3/4분기 성장률이 3.8%로 추정되는 등 여전히 견조한 모습
- 또한 주가 상승, 금리 하락, 달러화 약세 등으로 금융여건은 '22년 이후 가장 완화적인 상태. 관세 효과가 일시적이라는 파월의 주장은 장기 인플레이션 기대가 안정적인 때만 유효한데, 현재는 인플레이션 기대가 상승 중. 따라서 연준은 시장 기대보다 금리인하 경로가 가파르지 않을 것이라는 신호를 보낼 필요

■ 계속되는 증시 거품 논란, 위기 시 당국의 확고한 개입 의지 등이 배경 - Financial Times

(Bubble-talk is breaking out everywhere)

- 최근 증시 고평가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 IMF는 평가모델을 통해 위험 자산 가격이 펀더멘털을 크게 상회하여 급격하고 무질서한 형태의 조정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고 경고. 영란은행도 비슷한 입장을 표명. 민간 부문에서도 거품 영역에 진입한 자산이 많다고 지적하며 투자자의 현실 안주 행태를 우려(JPMorgan)
- 이와 같이 여러 거품 경고가 이어지는 속에서도 투자가 지속되는 이유는 위기 시 당국이 구원에 나설 것이라는 믿음에 기인. 실제로 '08년 이후 위기 때마다 중앙은행의 완화적 통화정책, 정부의 지원 및 시장 우호적 해결책 등이 시행. 이는 주가 하락 시 저점 매수를 초래하며, 점차 위험을 크게 우려하지 않는 동기를 제공

■ 중국 상업용 부동산 시장, 부실 매물 급증 등으로 '잃어버린 10년' 직면할 소지 - 블룸버그

(Chinese Real Estate Market Faces a 'Lost Decade')

- 중국 상업용 부동산 시장은 저금리 여건, 중국 기업 호황 예상에 따른 임대료 상승 기대 등으로 외국인 투자자의 대규모 자금이 유입(15년간 1,400억달러, Real Capital Analytics). 하지만 코로나 19, 장기 디플레이션, 글로벌 무역 갈등 심화, 공급 과잉 등 예상치 못한 상황이 전개되자 해외 투자자의 불안은 증폭
- 이에 부동산 대출 채무불이행 증가 경고(HSBC), 자금 회수의 어려움(Oaktree) 등이 제기. 시장의 조기 회복 가능성이 낮아지는 가운데 '30년의 건물 명목가치가 '20년보다 낮아지는, '잃어버린 10년'에 직면할 수 있다는 불안도 증폭(Oxford Economics)

■ 기업의 글로벌 경영, 再세계화 시대에 맞는 전략이 요구 - Financial Times

(How to run a global business in a re-globalised world)

- 미국이 대규모 관세 부과 등으로 전세계적인 보호무역 강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으나 일부 국가들은 여전히 기존 세계화의 이점을 유지하며 핵심산업 부문에서 협력을 강화. 또한 일부 국가들의 높은 상호 의존성 역시 긴밀한 경제협력을 정당화. 이와 같은 ‘再세계화’ 여건에서는 저비용 공급망 등이 더 이상 우선 시 될 수 없음을 시사
- 기업 역시 再세계화 시대의 요구에 적합한 경영 모델을 재설계할 필요. 과거의 방식인 효율성 우선 전략은 오히려 관세 부과 등의 추가 비용을 초래하고, 시장점유율 확대 및 해외 공급망 파트너십 유지 측면에서 효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추정. 또한 지역경제 투자를 통한 신뢰 확보 등으로 현지 정책 당국과의 긴밀한 협력에도 나설 필요

■ 미국의 트럼프 관세, 각국의 對美 수출 의존도 감안 시 효과는 제한적 - Financial Times

(Tariffs are a weaker weapon than Trump thinks)

■ 미국의 저조한 일자리 증가율, 시가 아닌 이민자 감소가 주요 원인 - Financial Times

(Why has US jobs growth been so anaemic?)

■ 그림자금융의 숨은 위험, 신용에서 거래상대방 위험으로 이동 - Financial Times

(Shadow banks' unknown unknow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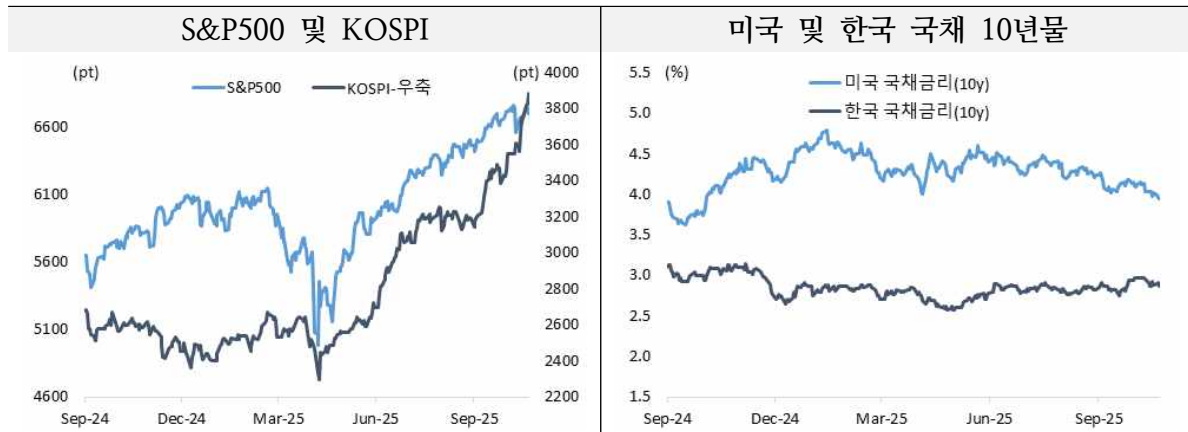
■ 영란은행의 연내 금리인하 가능성, 예상치 하회한 9월 소비자물가로 급등 - 블룸버그

(Traders See BOE Cut This Year After Inflation Holds Stead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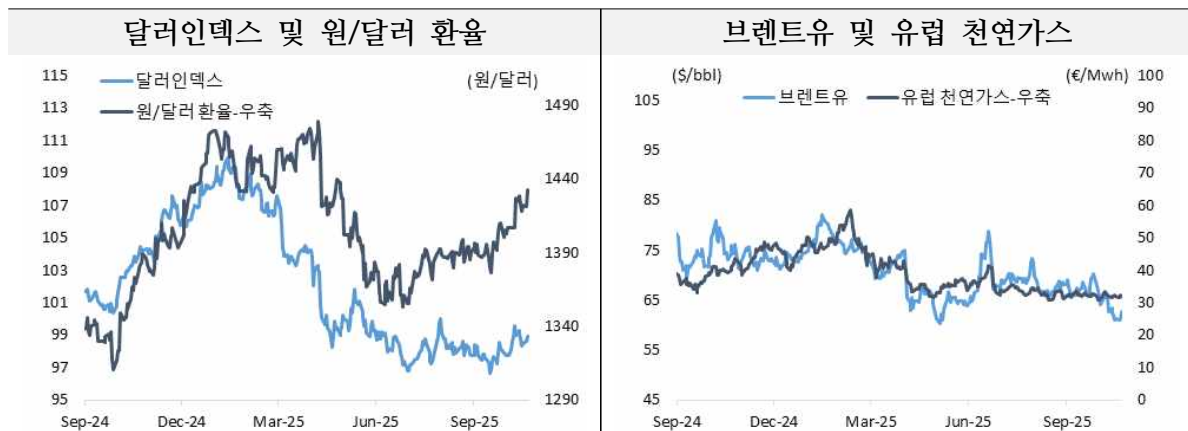
■ 프랑스의 개혁 지연과 대규모 부채, 유럽 전체의 문제로 전개될 우려 - 블룸버그

(France's Crisis Isn't Just Macron's Problem — It's Europe's)

금융시장 주요 지표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172, E-mail jsjeong@kcif.or.kr